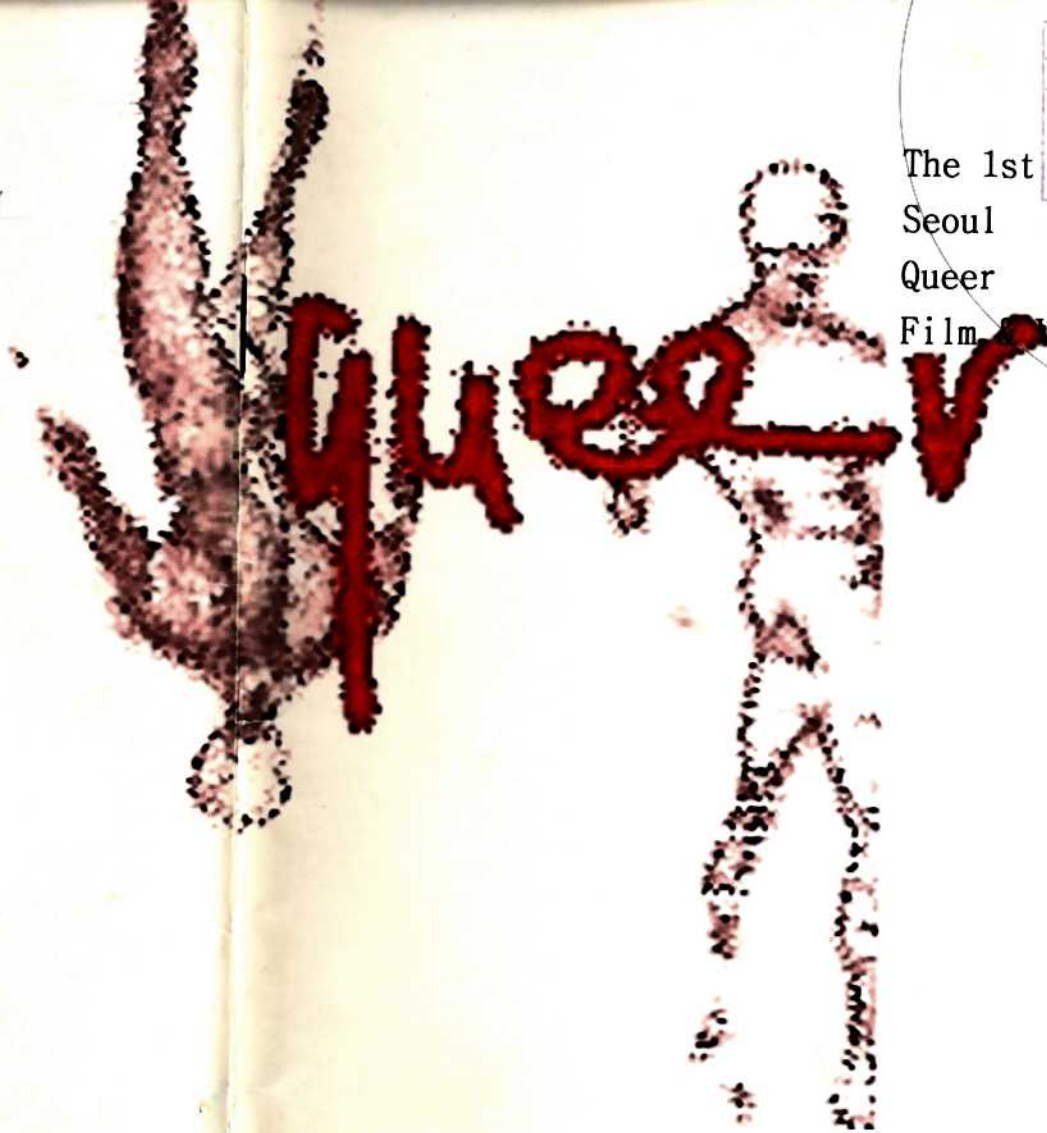


98	2/20	All 22

The 1st
Seoul
Queer
Film & Video Festival



queer

9.19-9.25
연대 동문회관

인기 자급식		
		22

제 1회 서울 퀴어 영화제

차례



초대의 글 1
 프로그램 안내 2
 개막작 소개 4
 폐막작 소개 5
 상영작 소개 (가나다 순) 6
 상영시간표 35
 영화제 행사 안내 36
 행사장 안내 38

초대의 글

퀴어시네마의 만신전(萬神殿)으로 초대합니다

지난 10여개월 간 제1회 퀴어영화제 준비위원회가 성명
 들며 마련한 퀴어시네마의 역사와 미래가 여러분의 눈 앞
 에 펼쳐집니다. 부당한 검열과 더 부당한 무시와 방치 속
 에서 그리고 혹심한 가난 속에서 마련한 프로그램들이 여
 러분 앞에 있습니다.

국제 비경쟁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퀴어 영화제인 서울
 퀴어영화제는 이제 첫 발을 댔을 뿐입니다. 서운한 심
 정이 목젢까지 차오름에도 서울 퀴어영화제는 늘 그랬듯
 스스로를 격려하며 여러분과 조우합니다. 구구히 말하는
 게 어리석음 만큼 흥흥한 보수주의가 득세하였고, 그럴
 즈음마다 우리를 만류하고 지지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
 다. 하지만 저희는 끄덕없이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최
 약의 상황에서 최선의 싸움을 하였고 또 아주 자그맣지만
 우리의 승리를 기꺼이 자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퀴어들에게 당보
 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화를, 우리의 문화를
 생산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단 일주일 동안이지만 나뉘
 할 것 없이 즐거워하십시오. 서울 퀴어 영화제는 이제
 여러분의 낯빛을 살피며 이 만신전의 문을 열 것입니다.

1997. 9. 10.

서 동 진

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 준비위원회 프로그래머, 집행위원

People: 서울 퀴어영화제와 함께한 사람들

- 집행위원회 : 김혜준, 서동진, 이흥주
- 프로그래머 : 서동진, 이흥주
- 코디네이터 : 정치화
- 해임자문위원 : 크리스 베리(Chris Berry), 닉
 데오캄포(Nick Deocampo), 나카타 도이치(Nakata
 Toich)
- 매체홍보국 : 권경미
- 홍보국 : 박기훈, 박시영, 서윤순
- 출판국 : 오승원
- 사무재정 : 김양희, 문주리
- 기술감독 : 백승조
- 자원봉사단장 : 신동훈

- 자막지원 : 문화학교 서울
- 영사기 지원 : 영화기획 보임
- 그 밖에 도움을 주신 분들 :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
 의회, 나무누리 동성애자모임 <레인보우>, 레즈비언
 독립잡지 <니아까>, 인권영화제 사무국, 포티시모
 Fortissimo와 바우터 Wouter, 아이작 줄리안 Isaac
 Julien과 마크 내쉬 Mark Nash, 영국 데인저러스 투
 노우 Dangerous To Know, 미국 독립TV방송국(I:TVS),
 여성들 영화를 만든다(Women Make Movies) 디렉터 데
 비 짐머만 Debbie Zimmerman, 김소연, 현경림 외
 여러분

프로그램 해설

* <퀴어시네마의 궤적들 The Trajectories of Queer Cinema>의 프로그램은 한국의 관객들에게 먼 거리에 위치한 퀴어 시네마를 소개한다. 퀴어시네마는 단일한 레즈비언, 게이 정체성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그 모든 곳으로부터 침투하는 새로운 영화들의 사슬이며, 우리는 이 나선적인 퀴어시네마의 발생을 역사라는 공간에서 다시 해석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우리는 퀴어 시네마가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가 아니라 자신을 동성애라는 정체성으로 단일화하는 힘에 저항을 피하는 영화로 본다. 그리고 퀴어시네마의 작가들과 관객들은 또 그런 우리의 시선을 기꺼이 증빙하여준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퀴어시네마가 얼마나 다양한 표정으로 또 얼마나 다양한 말솜씨로 하나의 가족유사성을 형성하는지를 관객에게 보여주려한다

* < 퀴어시네마의 새로운 경향들 : New Current of Queer Cinema >은 퀴어시네마의 표층 아래에 존재하는 또다른 겹의 퀴어시네마의 흐름을 조망한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퀴어시네마의 진정한 과거이며 또 진정한 미래일지 모를 그 모든 중후를 이 프로그램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뉴 퀴어시네마의 경향들'은 퀴어시네마의 가능성이 형성되고 창조되는 가장 역동적인 공간을 보여준다.

* 레즈비언과 게이들, 그리고 성적 소수집단은 항상 자신을 기록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덧없는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기 위해, 그리고 시간이 초래하는 체험의 부패를 막기위해 기록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부된 언어의 공간에서 발설할 수 없었던 자신의 욕망과 말들을 적고 보관하며 들춰본다. 그들은 일기를 쓰고, 자신이 독자인 자서전을 쓰며, 연인의 웃음을 홈비디오에 담고, 자신의 물건들과 표정을 찍는다. 진실을 위한 카메라들. 그 카메라들의 민첩하고 뜨거운 시선들이 <퀴어시네베리떼 Queer Cineverite> 프로그램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 <빛의 망명자들, 어둠의 거주자들 : 퀴어 디아스포라 The Immigrants of Light, The Residents of Darkness : Queer Diaspora >는 '차이를 만드는 차이'에 주목하며, 동성애란 범주가 갖는 대표성 혹은 진정성에 과감하게 질문을 던진다. 그를 위해 우리는 인종과 민족을 성정체성과 빚대어본다. 흑인 게이란 것은, 아시아계 레즈비언이란 것은, 동구권의 게이란 것은, 결국 같은 동성애란 범주로 환원가능하지 않다. 그 모두가 환원될 수 있는 동성애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 변신의 만화경 Kaleidoscope of Metamorphoses > 프로그램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러하다. 레즈비언과 게이들의 그리고 다른 성적 소수집단의 정체성은 어디에 기입되어 있을까. 또 어디를 통해 표현될까. 우리들의 정체성들이란 우리의 모든 곳에 심지어 우리의 시선이 미치는 저 바깥에 마저 존재한다는 점에 이 프로그램은 주목한다. 정체성은 우리의 본질의 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으며 살아가기위해 만들어낸 그 모든 우리의 기호(記號)이다.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세상의 그 모든 사물과 이미지로부터 자신을 만들 재료를 선택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본질의 변천이 아니라 생성,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제작과정을 보고자 한다.



*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의 특별 프로그램은 단연코 '에이즈 비디오 액티비즘'에 바친다. 우리는 퀴어시네마의 일차적 조건은 무조건적으로 에이즈라고 생각한다. 성이 죽음과 연결되는 시대에 에이즈는 자리했고 또 그 시대를 보증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성이란 이름으로부터 식별받고 긍정해야했던 레즈비언과 게이를 비롯한 성적 소수집단에게, 에이즈는 질병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야할 세계의 출발점이었으며 종착점이었다.

에이즈는 질병이 아니다. 에이즈는 의료적 사실이 아니다. 에이즈는 우리가 체험하고 생각하는 성의 의미를 새롭게 채색하고 조립하는 장치였다. 그리고 에이즈를 통해 동성애자들은 죽음을, 린치를, 증오를, 거부를 만끽했다. 결국 에이즈는 성의 인종주의를 가능케한 이데올로기였으며, 정치적 프로그램이었다.

물론 퀴어시네마는 바로 이로부터 출발한다. 다시금 말하지만 에이즈의 시대는 퀴어 시네마가 있었고 또 있는 환경이 아니다. 에이즈는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한 모든 의미의 조각들은 퀴어시네마의 그 모든 곳에 스며있다. 퀴어시네마의 작가들은 몸소 에이즈 비디오 운동에 가담했고 헌신한 투사들이었고, 또 여전히 그들은 투사들이다.

그들은 세트에서보다 먼저 거리에서 영화를 찍었으며, 분노와 상상력과 이미지와 영화의 미래를 바로 에이즈의 시대와 그로부터 비롯된 과거에서 찾아냈다. 그렇다면 우리가 퀴어시네마의 첫 축제를 그들에게 헌정한다는 지극히 옳은 선택이다. 그를 위해 에이즈 비디오 액티비즘에 헌신하였고 또 지금도 열정을 다하는 그들을 선택했으며, <침묵은 죽음이다>와 <에이즈 뷰>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우리는 그들을 지지하고 축복한다.

* 여성이란 무엇인가? 남성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고정된 것인가? 그러나 성별을 구별짓는 이러한 경계선 가운데에 위태롭게 서있는 사람들이 있다. <성의 무법자들 Gender Outlaw >에서 우리는 성별을 위반하는 이러한 존재들을 만난다. 이 무법자들에게 젠더는 불변의 실체일 수 없으며, 젠더를 엮먹이는 유희는 즐거운 것이다. 그 유희에 동참하는 동안 당신은 몇번이나 역겨워하거나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지독히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 마침내 퀴어영화의 역사와 다양한 공간을 꼼꼼하게 되짚어온 우리는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필름을 사유하기에 이른다. 지금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필름은 무엇인가. 감독의 신원, 영화의 주제, 영화의 공간은 영화와 어떻게 작용하는가. 지난 수년간 잇달아 선보인 주요한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주제의 단편영화들을 망라하는 <다른 몸 다른 시선 Different Bodies/Different Gaze > 이라는 한국영화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착수한다.



초콜렛 베이비 Chocolate Babies

스टे판 윈터 Stephen Winter, 80분, 미국, 1997

어쩌면 다시한번 게이 드라마의 봄은 올 것인가? 97년의 퀴어시네마는 그런 예감을 충분히 가능하게하는 전조들로 가득하다. 게이 액션드라마와 갱스터, 느와르, 호러들이 붓물처럼 쏟아진 97년의 퀴어시네마 현장에서 <초콜렛 베이비>는 단연 두각을 나타낸 수작. 통쾌한 속도와 유머의 게이액션드라마 <초콜렛 베이비>는 옹오면서도 흥미진진한, 진에 없던 게이 액션드라마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검둥이 호모 갱들이 선포한 반동성애적 세계와의 전쟁.

여관소동 Inn Trouble

크리스티나 레이 Christina Rey, 92분, 35mm, Col, 1996, 미국

영화감독을 꿈꾸는 소피와 연인에게서 버림받고 비탄에 빠져 있는 크리스에게 갑자기 부여된 임무. 그녀들의 사랑과 섹스의 추억이 어려있는 레즈비언 전용 여관을 지켜라! 여관주인 메기가 죽은 후 이 레즈비언들을 위한 전용 여관은 탐욕스러운 집주인의 손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다. 저승에서 레즈비언 친구들을 돕기 위해 돌아온 유령 메기! 유머러스한 농담과 아름다운 사랑이 아르헨티나 최초의 레즈비언 가수 셀레스트(Celeste Garballo)의 행복한 사운드 트랙과 함께 펼쳐진다.





고양이가 잉꼬를 삼키고 말하다 Cat swallow Parakeet and Speaks!

일레나 피에트로브루노 Ileana Pietrobruno, 75분, 16mm, Col & b&w, 1996, 캐나다

젊고 아름다운 모델, 세헤라자데는 위궤양으로 쓰러져 음산하고 기괴한 병원으로 실려온다. 그녀는 열침대에서 죽어나가는 젊은 여성들을 보면서, 의사 스토리에게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그가 자신을 죽여 버릴지도 모른다는 환상에 빠진다. 신기한 이야기거리를 찾으려던 세헤라자데는 싸구려 신문들의 온갖 가십거리를 믿는 거식증에 걸린 발레리나 지방생 코어와 친해진다. 아라비안 나이트 설화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여성 육체를 스테레오타입화하고 착취하는 선정적인 미디어와 가부장적인 의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시도하는 이 작품은, 초현실적인 영상과 사운드로 이루어진 실험영화이다.

그것은 기본 It's Elementary

데브라 채스노프 Debra Chesnoff, 80분, 16mm, Col, 1997, 미국

엉뚱한듯 하지만 절대 만만치 않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초등학교들에게 게이에 관하여, 동성애에 관하여 가르치기로 한다면 당신은 찬성을 할것인가 말것인가, 그리고 가르친다면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기본>은 그 질문에 착수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고 모색하기위한 우리의 질문에 새로운 질문을 추가한다.



그녀는 스러지지 않는다. She don't Fade

체릴 듀네 Cheryl Dunye, 23분, Col, b&w, 1991, 미국

흑인 레즈비언 감독 체릴 듀네는 다양한 형식들을 동원해서 특유의 '현실성 reality' 을 창조한다. 저로 사랑하는 흑인 여성들을 바라보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가득차 있는 이 작품에서 듀네는 배우이자 또한 영화를 찍는 감독이다.

그저 그런 결혼피로연이 아니올시다 Not Simply a Wedding Banquet

미키 첸과 밉슈-첸 Mickey Chen and Ming-Hsiu Chen, 50분, 비디오, Col, 1997, 대만

저 유명한 이안 감독의 <결혼피로연>은 아시아적 가족주의의 위기와 성정체성의 갈등을 교차시키고 탐문했던 아름다운 영화. 하지만 그 너무나 영화적인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그저 그런 결혼피로연이 아니올시다>는 대만 최초의 게이 커플의 공개적 결혼연을 따라가며 <결혼피로연>이 엄두낼 수 없었던 문제들을 제기한다.



9.24.5 회

A

퀴어시네마의 궤적들

8



9



9.22.2 회

H

성의 무법자들

글리터버그 Glitterbug

데릭 저만 Derek Jarman. 52분. 35mm. Col. 1994. 영국

현대의 르네상스맨 데릭 저만. 퀴어 시네마의 전방위에선 시네아스트이자 현대의 가장 전위적인 아방가르드 킬트 감독. 죽음에 임박한 자가 들려주는 자신과 자신의 영화,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세계에 관한 비범한 이미지의 연속체. 데릭 저만이 들려주는 침묵 속의 자신에 관한 시적 자서전을 재발굴한다.

나는 니가 무서워 Groove on a Stanley Knife

팅즈 크리슈난(Tinge Krishnan) & 베스 코털러(Beth Kotler). 42분. 16mm. col. UK. 1997

이 강렬한 영화는 두 여자 사이의 진전되는 관계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간다. 마약딜러에게 쫓기다 화장실로 몸을 숨긴 젊은 여자들. 시시껄렁한 농담으로 한숨 돌리던 중, 더 심각한 논쟁에 직면하게 되는데... 스테프의 레즈비어니즘과 타미의 호모포비아! 시각적으로 도발적인 영상과,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첨예한 논쟁과 거친 싸움들이 숨돌릴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깨끗한 흐름 Fresh Kill

슈 리칭 Shu Leacheang. 분. Col. 1997. 미국

배경은 종말이 가까워 보이는 뉴욕이다. 부패되어 출몰하는 물고기들은 썩어가는 세계의 마지막 징후를 보여주지만, 거대기업이 통제하는 미디어는 어떠한 위험도 경고해 주지 않는다. 원래 '죽임'과 '흐름'의 두가지 뜻을 가진 'Kill'이라는 단어는 부패한 매스미디어가 주도하는 정보의 흐름과, 산업폐기물로 인한 세계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 영화는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유포하는 미디어와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공격이다.

나의 여름방학 My Summer Vacation

스카이 길버트 Sky Gilbert. 95분. 16mm. Col. 1995

그럭 애틀키와는 또다른 시선으로 마주하는 X세대 퀴어의 사랑과 좌절. <나의 여름방학>은 한 게이소년이 마지막 여름방학에 마주친 사랑과 자각을 통렬하게 묘사한다. <나쁜 영화>식의 어법을 빈 지극히 좋은 게이영화 한 편을 꼽는다면 단연 <나의 여름방학>. 캐나다로부터 건져올린 새로운 퀴어시네마의 현장.

변신의 만화경

F

9.23.1 회



호모 소년들

B

9.22.4 회



노동자와 방랑자 The Toilers and The Wayfarers

키스 프리리히 Keith Froelich, 75분, 16mm, Col, 미국

시골 마을의 두 게이 소년이 겪는 또 한편의 성장드라마인 <노동자와 방랑자>는, 게이 드라마의 영역과 소재의 확대를 보여주는 최신작. 도시 중산층 백인 게이 커플의 사랑과 갈등이라는 관습적 이야기의 공식을 탈피한 <노동자와 방랑자>는 게이로서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길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응시하는데 성공한다.

레스보스 섬 Isle of Lesbos

제프 하몬 Jeff B. Harmon, 98분, 35mm, Col, 1996, 미국

너무나 악취미적이고 너무나 불손하기 짝이 없는 <레스보스 섬>은 우리의 여전사 애플 피콧의 대 모험과 역정을 그린 영망진창 뒤죽박죽 레즈비언 환상 뮤지컬. 우리의 레즈비언 영웅 애플 피콧은 이 레즈비언 판 <오즈의 마법사>에서 포복절도할 모험과 환상을 헤쳐나간다. <아드리안 라인>의 점잖고 아름다운 환상 공동체와는 전혀 판관인 또다른 레즈비언 환상 영화. 당연 재미와 쾌감은 말아는 일.

다른 몸 / 다른 시선 : 한국의 레즈비언 / 게이 필름들 (특별 프로그램 II) Different Bodies/Different Gaze : Lesbian Gay Films in South Korea (Special Program II)

지금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필름은 무엇인가. 감독의 신원과 영화의 주제와 영화의 공간은 영화와 어떻게 작용하는가. 지난 수년간 잇달아 선보인 주요한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주제의 단편영화들을 망라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질문에 착수한다.

마법의 성별 Juggling Gender

타미 골드 Tami Gold, 27분, 비디오, Col, USA

수염이 자라는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레즈비언이자 행위예술가이고, 수염이 무성한 서커스 감독인 제니퍼 밀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여성 혹은 남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된다. 제니퍼 밀러에 대한 이 매력적인 초상은 성정체성에 대한 관객들의 익숙하고 해묵은 범주들에 도전한다.

과대망상,
어머니,
결말, 김진한,
허스토리,
새가 없는 도시



한국퀴어필름

성의 무법자들

A

퀴어시네마의 궤적들



모래알 처럼 Like Grains of Sand

료슈케 하시구치 Ryosuke Hashiguchi, 129분, 35mm, Col., 일본

선댄스가 주목한 대표적인 아시아 감독 료슈케 하시구치는 게이 탄에이저들의 사랑과 열망에 얽힌 이야기를 꼼꼼하고 섬세하게 그려내는데 매우 능한 감독. 그가 두 번째로 내놓은 장편 게이성장 영화 <모래알처럼>은 이토란 게이 소년의 아름다운 사춘기적 열병을 다룬다. 호모들이여, 우리에게 <중경삼림> 못잖은 <모래알처럼>이 있다.

미노루와 나 Minoru & Me

나카타 도이치(中田統一) Nakata Toich, 45분, 비디오, 컬러, 1992, 일본

이 정도로 자신과 타인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달라. 재일교포 게이 감독 나카타 도이치가 들려주는 집요한 반성과 교감의 이야기 <미노루와 나>. 우리는 이 도큐멘타리에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정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말하는 신체장애와 성정체성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도큐멘타리

D

A

퀴어시네마의 궤적들



미드나잇 댄서 Midnight Dancers

멜 치옹글로 Mel Chionglo, 128분, 35mm, Col., 1994, 필리핀

소니네 가족은 빈곤을 피하기위해 마닐라에 정착한 노동계급 출신의 빈한한 가족. 고향에서 혼자 학교를 다니던 막내 소니마저 가족을 찾아 마닐라로 오며 미드나잇댄서는 시작한다. 가난한 주변적 3세계의 게이공동체에 대한 보기도문 초상화, 아울러 퀴어시네마의 비어있는 공간을 메우는 영화적 성과.

볼로 볼로 Bolo! Bolo!

지타 삭센 & 이안 라쉬드 Gita Saxen & Ian Rashid, 30분, 비디오, Col., 1991, 캐나다

볼로! 볼로! 곧 춤을 춰야할 듯한 흥겨운 선율과 함께 시작하는 이 유쾌한 도큐멘터리는 우리의 문화적 가설에 일침을 가한다. 질병 앞에 모두 평등하다. 하지만 그건 헛소리. 질병 앞에 우리는 평등하지 않다. 에이즈라는 질병의 심리적, 문화적 성격을 인종과 성에 빚대어 성찰하는 비디오 텍스트북.



에이즈 쇼

G



분노의 69년 : 침묵에의 의문(1부)

Outrage '69 : The Question Of Equality(Show1)

아서 텡과 TTL Arthur Dong and Testing The Limits. 56분. 16mm. Col. 199. 미국

한계를 시험하라 'TTL'는 퀴어 비디오운동의 살아있는 증인들. 이들은 미국 현대사회에서 퀴어 정체성의 변천을 다시 쓴다. 퀴어 정체성의 변화는 무엇보다 바로 자신에 대한 통제와 기율에 맞선 저항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분노의 69년>은 반질운동과 흑민공민권운동으로 불타올랐던 69년, 그해에 함께했던 스톤월 항쟁으로부터 퀴어 정체성의 역사를 다시 쓴다.



사이몬이란 호모 A Moffie Called Simon

존 그레이슨 John Greyson. 15분. 16mm. Col. 1987. 캐나다

모피는 남아공에서 게이를 가리키는 은어. 사이몬은 그 모피. 극악한 인종분리주의와 이성애주의 속에서 게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이몬이란 호모>는 그 질문에 답하려는 한 학생 운동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사디 베닝의 작품들

The Works of Saddle Benning

사디 베닝 Saddle Benning. 68분. 비디오. b&w. USA. 1989-91

15살에 사디베닝은 장난감 비디오 카메라로 '레즈비언으로 성장하기'에 대한 솔직하고 재미있는 영화들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거친 영상과 초저예산의 비디오 작업은 10대 레즈비언이 부재하는 야만적인 텔레비전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이면서, 정체성을 수락해가는 한 소녀의 깨달음을 담은 자각교백이다.

- 나 그리고 루비푸르트 Me and Rubyfruit. 4분. 비디오. b&w. 1989. 미국
- 새해 A New Year. 4분. 비디오. b&w. 1989. 미국
- 유쾌한 친구들 Jollies 11분. 비디오. b&w. 1990. 미국
- 모든 소녀들에게 일기가 있다면. 6분. 비디오. b&w. 1990. 미국
- 사랑의 동지 A Place called Loverly. 20분. 비디오. b&w. 1991. 미국
- 정상적인 것들이 안녕 Welcome to Normal. 19분. 비디오. b&w. 비디오. 미국
- 살아있는 내면 Living Inside. 4분. 비디오. b&w. 1990. 미국



사적인 전쟁들 Private Wars

닉 데오캠프 Nick Deocampo, 65분, 16mm, Col., 1996. 필리핀

전쟁은 국가와 국가가 겨루는 싸움이다. 하지만 전쟁은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 전쟁은 또한 우리의 삶에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필리핀 씨네베리테를 이끌어온 전투적인 영화투사 데오캠프는 가족과 정체성, 그리고 전쟁을 잇는 수많은 씨줄과 날줄을 뒤뚱고 또 다시 풀어헤친다.



살인 그리고 살인 MURDER and murder

이본느 라이너 Ybone Rainer, 113분, 16mm, 1996. 미국

중년인 도리스는 밀드레드와 사랑에 빠지면서 평생 처음으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둘의 사랑은 도리스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위협에 직면한다. 이야기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거나, 영화적 공간과 현실을 교차하는 여러 인물들의 출현에 의해 더욱 복잡해 지는데, 죽은 도리스의 어머니와 어린시절의 밀드레드는 과거의 문화적 공간을 탐색하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감독인 이본느 역시 직접 영화에 등장해서 절제된 자신의 한쪽 가슴을 보여주면서 여성의 건강과 질병의 대한 의학의 무관심을 비판한다. 숨오페라, 블랙코메디, 리브스토리화 정치적 침묵이 뒤섞인 노장여성 감독의 마지막 장편 영화는 유머와 은유를 통해 정체성과 여성의 육체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으로 결정된 개념들을 공격한다.

산파 이야기 The Midwife's Tale

메간 사일러 Megan Siler, 75분, 16mm, USA, 1995

엄마의 새애인이 된 아줌마가 침대 머리에서 한편의 동화를 들려준다. 때는 중세, 귀족가문의 아름다운 소녀 엘렌느는 강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처지지만, 어머니가 출산 중에 죽었기 때문에 임신을 몹시 두려워한다. 엘렌느는 임신이 안되게 하는 비법을 알고 있는 영험한 산파에게 하나 제니스를 보내지만, 그 늙은 산파는 마녀재판에 회부되어 버렸다. 엘렌느는 제니스와 힘을 합쳐 산파를 구하려고 하고, 많은 모험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결국 늙은 산파는 복이 매달리고, 제니스는 귀족 여성을 '소유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보내진다

숨바꼭질 Hide and Seek

수 프리드리히 Su Friedrich, 63분, 16mm, 흑백, 1996. 미국

무는 나무집에서 살고 싶어하고, 락을 좋아하지만 플레이보이지나 성교육용 영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12살짜리 말괄량이 소녀이다. 그녀는 어느날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남자친구와 사귀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알 수 없는 정적 느낌들에 직면한 60년대 소녀의 허구적인 드라마와, 이미 어른이 된 레즈비언들이 고백하는 고통스럽지만 우스꽝스러웠던 소녀시절의 사랑들, 커밍아웃 에피소드등의 사실적인 자기 고백이 뒤섞인 이 영화는 사춘기 레즈비언어니즘에 관한 대담한 탐색이다.



9.25.2 회

H

성의 무법자들

18



19



9.21.3 회

B

호모 소년들

신주쿠 소년들 Shinjuku Boys

김 론지노토와 자노 윌리엄스 Kim Longinotto & Jano Williams, 53분, 16mm, Col., 1995, 영국

도쿄에 있는 뉴마릴린 클럽을 방문하면 남자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여성고객들을 친절하게 접대하는 여자들 '오나베'를 만날 수 있다. '신주쿠 소년들'은 남자처럼 일상을 살면서 클럽의 호스트로 일하는 세 명의 오나베의 삶을 기록한다. 타트슈는 여자친구 토모에와 함께 살고, 가이수는 걸프렌드가 많은 플레이 보이 타입에 티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가츠키는 남성성전환자면서 나이트 클럽 댄서인 큐미와 함께 살고 있다. 이 세명의 오나베들은 카메라 앞에서 여성, 성역할, 복장도착, 레즈비어리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다.

안내원 The Attendant

아이작 줄리안 Isaac Julien., 1992, 영국

금지된 관능, 금지된 욕망은 이 과격한 흑인 게이감독에겐 하등 문제가 될 게 없다. 8분의 짧은 시간에 그는 어떤 장면도 엄두낼 수 없는 흑인 게이의 욕망을 강력하게 묘사한다. 검은 게이들의 욕망에 관한 너무나 시적인 보고서.

실버레이크 라이프 : 여기로부터의 조망

Silverlake Life : The View From Here

탐 조슬린과 피터 프리드먼 Tom Joslin and Peter Friedman, 99분, 비디오, Col., 1993, 미국

그 어느 멜로드라마보다 천만배는 슬프고, 그 어느 사랑보다 숭고한 사랑을 찾는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들의 표정을, 이들의 몸을 뒤덮은 죽음의 명령을, 그리고 분명 천사가 되었을 이들의 영혼을 살펴보라. 에이즈는 차라리 축복이다. 우리는 그로부터 그간 잊고있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배웠기 때문이다. 게이, 레즈비언 연인들이라면 반드시 잊지않아야할 필수작.

연꽃자매들 Lotus Sisters

웨이인 영 Wayne Yung, 5분, Col., 비디오, 1996, 캐나다

'난 지금 혁명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있어', '넌 아시아의 게이여왕이야'. 거품처럼 허공 속에서 터뜨려지는 되돌아오지 않을 듯한 몇마디의 말들. 그리고 서구 백인 게이사회에서 아시아계의 게이로 살아간다는 것, 섹스를 한다는 것, 그리고 결국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것.

에이즈쇼

G

9.21.1 회



퀴어 정체성과 인종

E

9.25.1 회

A

퀴어시네마의 궤적들



오직 용감한 자 Only the Brave

아나 코키노스 Ana Kokkinos, 59분, 35mm, Col., 1994, 호주

멜버른 근교의 황폐한 마을에 사는 두 레즈비언 소녀 알렉스와 비키의 거칠다 거친 통과 의례 그리고 우정. 작가지망생인 알렉스와 가수 후보생인 비키, 이 두 명의 소녀가 머물 곳은 어디에도 없다. 다이크 드라마의 전조들로 가득찬 퀴어시네마의 문제작.

완전히 엇먹은 Totally F***ed Up

그렉 애러키 Gregg Araki, 85분, 16mm, Col., 1994, 미국

신세대 미국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감독 그렉 애러키의 퀴어 틴에이지 삼부작의 첫 이야기 <완전히 엇먹은>. 소문으로만 접하던 애러키의 걸작을 마침내 조우하게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흥분되는 기회. 자칭 "인디펜던트-게릴라-언더그라운드-미국 뉴웨이브-네오리얼리스트 영화"의 전방위인 그렉 애러키가 주장하는 과격하고 황홀한 퀴어시네마의 세계.

퀴어시네마의 궤적들

A



C

다이크 소녀들

욕망 Chahaath

릴리 굽타 Lily Gupta, 6분, 비디오, Col., 1996, 캐나다

이 영화의 원제 '차아스(Chahaath)'는 욕망이란 뜻.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양철냄비처럼 레즈비언들의 욕망과 사랑이 끓어진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 : 에블린 후커 박사 이야기 Changing Our Minds : The Story of Dr. Evelyn Hooker

리처드 슈미첸 Richard Schmiechen, 75분, 35mm, Col., 1991, 미국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하지만 다행히 동성애가 정상이란 소식 만을 기억한 채 유유자적 한다면 그건 분명 태만이다. 동성애가 질병의 누명에서 벗어나는 것 못잖게 중요한 건 왜 동성애가 질병이란 의학적 사실에 목였냐는 것.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 영화를 보라.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당신의 상상을 맹렬하게 자극할 하지만 흥미진진한 도큐멘터리



도큐멘터리

D

E

퀴어정체성과 인종



우유와 물이 섞이면 Blending Milk and Water : 신대륙의 성 A Sex In the New World

폴 웡 Paul Wong, 28분, 비디오, Col., 1996, 캐나다

그들은 모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캐나다로 온 중국인들. 그들에게 이민으로서의 삶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타지에서의 삶은 타지의 섹슈얼리티와의 갈등을 주문한다. 각양각색의 중국계 이민들이 들려주는 자신의 변천과 갈등, 그리고 그 언어들의 모자이크.

위협적인 성전환자들 Transexual Menace

로자 폰 프라운하임, Rosa von Praunheim, 60분, 비디오, Col., 1995, 독일/미국

그와 똑같은 이름인 '위협의 성전환자들(Transexual Menace)'이란 뉴욕의 성전환자 운동조직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대담히 행복을 위한 자기 결정권을 모색하는 90년대 퀴어들의 투쟁, 이성애적 남녀구별은 가라!



성의 무법자들

H

B

호모 소년들



인디안 섬머 Indian Summer

낸시 맥클러 Nancy Meckler, 199, 영국

에이즈 시대에 감히 사랑을 한다는 건 어차피 엄청난 각오와 시련을 요하는 법. 영국으로부터 전해온 에이즈 시대의 게이 로맨스 <인디안 섬머>는 그 엄청난 각오의 사랑에 뒤따르는 공포와 연민, 갈망과 주춤거림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에 대한 용기를 꼼꼼히 화면으로 옮겨온다. 관습적이지만 그렇다고 절대 전부하지않은 낭만적이지 않으려는 낭만적인 게이 멜로.

인터피디시마 Intrepidissima

마르타 발레트콜 Marta BalletColl, 7분, 35mm, Col., 스페인, 1992

1993년 샌프란시스코 국제 레즈비언게이영화제에서 최우수 단편상을 수상한 바 있는 다이크 단편드라마의 대표작. '드레스는 정말이지 입기 싫어!'를 연발하는 다이크 소녀들이여, 이 영화를 보라. 다이크 소녀의 재능과 울화를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진진한 드라마.



다이크 소녀들

C

9.21.6 회

A

퀴어시네마의 궤적들

24



잃어버린 병사를 찾아서 For a Lost Soldier

로에란드 케르보슈 Roeland Kerbosch, 92분, 35mm, Col, 1993, 네덜란드

<잃어버린 병사를 찾아서>는 한 소년의 눈에 비친 전쟁과 사랑의 이야기. 13살의 어린 소년이 2차대전의 포연 속에서 한 외국인 병사와 사랑에 빠진다. 대담무쌍한 소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박하고 아름다운 이 이야기에 우리는 기꺼이 주목할 수 있다. 감히 논쟁을 자청하며 선택한 네덜란드로부터 발견한 아름다운 게이성장 드라마.

재림 The Second Coming

잭 월쉬 Jack Walsh, 53분, 16mm, B/W, 미국, 1995

카를로스라는 혼혈 게이소년의 성장과 커밍아웃 이야기. 하지만 멜로도 로맨틱 코메디도 아닌 정치인 실험영화. 카를로스는 동성애공포와 인종차별에 맞서 열정적인 투사로 변신하고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쿠데타 위협에 맞서 비디오 테입 제작을 통해 위기에 맞서는데, 진부한 실험영화에 지친 관객들에 이 귀여운 실험 단편은 눈을 번쩍 뜨이게하는 재미를 줄 것.

호모 소년들

B

9.21.3 회

25



젖는 것은 위험하다 Dangerous when wet

다이안 본더, Diane Bonder, 8min, 흑백, 비디오, 1992, 미국

'젖는 것은 위험하다'는 첫 번째 오르가즘과, 그러한 경험을 묘사할 마땅한 언어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이다. 화면의 이미지들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욕망을 탐색하는 동안, 내러이션은 그러한 성적인 자극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의 두려움과 기쁨에 대해서 말한다.

젊은 영혼의 반란 Young Soul Rebels

아이작 줄리안 Isaac Julien, 103분, 35mm, 컬러, 1991, 영국

두 명의 흑인 게이 펑크족에 관한 영화가 있다면 어찌면 당신은 귀를 의심할지도 모를 일. 감히 상상이야 하겠지만 차마 영화의 세계로 불러들일 수 있는 이야기일까. 그 도발적인 영화로부터의 싸움이 아이작 줄리안의 <젊은 영혼의 반란>에서 펼쳐진다.. 칸느로부터 찬사 받은 퀴어 시네마의 걸작 <젊은 영혼의 반란>은 서울 퀴어영화제가 흥분 속에 추천하는 퀴어시네마의 대표작.



퀴어시네마의 궤적들

A

9.20.6 회

A

퀴어시네마의 궤적들



제로 페이션스 Zero Patience

존 그레이슨 John Greyson, 100분, 35mm, Col, 1993, 캐나다

MGM식 뮤지컬에 에이즈 시대의 분노를 담은 퀴어정치학을 뒤섞고 다시 여기에 요절복통 포스트모던 코메디를 쏟아붓고 휘젓는다면? 에이즈 뮤지컬 코메디라는 전대미문의 영화 <제로 페이션스>는 그 궁극중에 정확하게 호응하는 영화적 답변. 자기연민과 조울증의 게이 드라마에 지쳤다면 기꺼이 이 코메디를 택할 것. 하지만 이 뮤지컬 코메디가 경박하고 유쾌하기만 할 것이라 짐작하는 건 금물이다. 절대 간단찮고 만만찮은 통렬한 풍자와 함께 하는 퀴어시네마의 수작.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들 Not Just Passing Through

진 카를로무스토, 돌로레스 페레즈, 캐서린 샬필드, 그리고 폴리 디스틀스워이타의 공동작업
Jean Carlomusto, Dolores Perez, Catherine Saalfield, and Polly Thistlethwaite
60분, 비디오, Col, 1996, 미국

레즈비언들 비디오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다! 알다시피 레즈비언은 현대 사회에서 항상 없는 존재였다. 그들은 자신을 지칭하는 언어도 없었으며, 그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곳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런 침묵과 부재 속에서 레즈비언들은 비록 그것이 하나의 섬과 같더라도 자신의 역사를 만들었다. 지나칠수 없는 이야기들은 레즈비언 비디오 활동가들에 의한 사라진 혹은 재발견된 레즈비언 역사의 보고서.

도큐멘터리

D



F

변신의 만화경



지상최대의 낙천주의자들 : 호모코믹스(Homocomics)

퀴어 애니메이션 / 뮤직비디오 모음

게이 슈퍼맨 2인조 위기의 지구를 지키기위해 악당을 물리치다! 레즈비언 바비인형들의 비밀결사 샤를렌드 천사단 성폭력의 위협에 처한 레즈비언 동료들을 구출하다! 아킬레스의 비장한 그리스적 사랑의 서사시를 읊조리다! 다양한 퀴어애니메이션의 종합선물세트. 더불어 보너스로 레즈비언/게이 핑크신의 씩씩한 풍경들!

앵무적인 아름다움, 데이빗 웨이스만 David Weissman, 7분, 16mm, Col, 1986, 미국
평균률 Law of Average, James Duesung, 14분, 비디오, Col, 1996, 미국
밤 이속히 Late at Night, Stefanie Jordan 외, 4분29초, 35mm, Col, 1997, 독일
알다가도 모를 게이 2인조 Ambiguously Gay Duo,

JJ Sedelmeier, 12분, 비디오, Col, 1997, 미국

메이데이 Mayday, Stefanie Jordan, 2분, 비디오, Col, 1997, 미국

나의 달 그녀의 세상 My moon Her world, Vicky Smith, 7분, 16mm, Col, 1995, 영국

아킬레스 Achilles, Barry Purves, 11분, 35mm, Col, 1997, 영국

진짜 널 원했어 I really wanted You, Anjali Sundaram, 2분30초, 비디오, Col, 1996, 미국

퀴어코어 ueercore), Sott Treleaven, 21분, 비디오, b&w, 1997, 미국

에이디에스 전염병 Ads Epidemic, John Greyson, 4분, 비디오, Color, 199?, 캐나다

카렌의 천사들 Carlen's Engels, Donna Quince, 10분, 비디오, Color, 1996, 캐나다



침묵은 죽음이다 :
에이즈 비디오 액티비즘에 바친다
(특별 프로그램 I)

Solence Is Death : A Tribute To AIDS
Video Activism(Special Program I)

침묵은 죽음이다!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의 퀴어시네마에 대한 가장 단호한 입장 가운데 하나는 퀴어시네마는 에이즈 시대의 동성애에 관한 영화라는 것. 전설의 퀴어정치조직 액트업(ACT UP)의 결연조직 디바티비(DIVA TV)의 비디오운동 작업의 엄선. 그리고 에이즈 비디오 액티비즘에 대한 경외와 축복.

에이즈 운동가의 역할 Role of AIDS Activists 29분, 비디오, Col, 1993, 미국
스톤월의 정신으로 퀴어들 에이즈와 맞서 싸우다
In the Tradition of Stonewall, Queers Fighting AIDS, 29분, 비디오, Col, 1994, 미국
에이즈 도큐다이어리 By Any Means Necessary, 6분, 비디오, Col, 1994, 미국
정치적 장례식 Political Funerals, 29분, 비디오, Col, 1995, 미국



질산염 키스 Nitrate Kisses

바바라 해머 Babara Hammer, 67분, 16mm, b&w, 1992, 미국

서구 문화속에 감춰져있던 레즈비언/게이 정체성의 흔적들이 필름, 편지, 책, 스냅사진등의 밧바랜 고문서 더미들 속으로부터 벗어나온다. 미국 최초의 게이 필름 <소돔의 운명 Lot in Sodom>의 에로틱한 영상들은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는 노쇠한 레즈비언들의 육체 이미지와 교차되며, 가장 급진적인 정치적 선언들을 들려준다. '에이즈의 시대', '안전한 섹스의 시대', '노쇠에 대한 폭력의 시대'에 정면도전하는 '여성동성애'의 찬가.

케이 K

최소원, 20분, Col, 비디오, 한국, 1997

프리즈랑의 'M'에서 착안한 듯한 K는 살인을 저지르고 사라지는 한 여성의 어깨에 달린 표식이다. 인적이 드문 지하철, 금방 여행에서 돌아온 듯한 한 소녀는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낯선 여성에게 강하게 이끌리면서, 그녀의 뒤를 밟는다. 마침내 두 여성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소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성이 도시를 떠들석하게 만들고 있는 최대의 연쇄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 여성, 혹은 레즈비언의 삶을 억압하는 실체는 무엇일까? 두 여성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그의 어깨위에 살인자의 표식인 M을 붙여놓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 영화는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한 것 같다.



E

퀴어정체성과 인종



쿠쉬 Khush

프리티바 파마르, 24분, 16mm, Col., 1991, 영국

쿠쉬는 행복함이나 게이적인 것을 뜻할 뿐 아니라 무아경의 쾌락을 뜻하는 남아시아 우루두(Urdu)의 말. 남아시아계 레즈비언, 게이들은 자신을 부를 때 이 이름을 사용한다. 유색인종 레즈비언 감독 가운데 독보적인 시네아스트 파마르가 들려주는 변방의 레즈비언 정체성.

퀴어 세대 : 침묵에의 의문(4부)

Generation Q : The Question Of Equality(Show4)

Testing The Limits, 56분, 16mm, Col., 199, 미국

<침묵에의 의문>의 마지막 4부인 <퀴어 세대>는 죽음에의 공포와 분노와 충오로 집착되었던 80년대의 에이즈 위기를 거치고난 지금 바로 여기의 게이, 레즈비언에게 카메라를 돌린다. 레즈비언, 게이 틴에이저들, 이들은 자퇴와 알콜, 마약의 유혹을 견뎌내야하고 자신에 대한 적대와 거부를 견뎌야한다. 과연 틴에이저들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보일까?

다큐멘터리

D



A

퀴어시네마의 궤적들

KISSING DOESN'T KILL: GREED ANE



탐 칼린의 작품들

The Works of Tom Kalin(1990-1994)

퀴어 시네마의 마에스트로 탐 칼린을 위해 왜 우리는 줄도 Swoon를 배정하지않고 쾌심하게도 이 누추한 단편들을 선택한 것일까. 하지만 탐 칼린의 이 단편들이 누추하다면 당신은 퀴어시네마를 볼 자격이 없다.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 그리고 베네통(Benetton)으로부터 배우라!'고 서슴없이 선언한 포스트모던-팝아트식 선동가 탐 칼린의 걸작 스포들.

- 임맛춤은 목숨을 잇아가지 않는다. Kissing Doesn't Kill, 1분 30초, 비디오, Col, 미국
- 최종 파괴 Finally Destroy Us, 4분, 비디오, Col, 1991, 미국
- 국가 Nation 1분, 비디오, Col, 1992, 미국
- 유목민들 Nomads 4분, 비디오, Col, 1993, 미국
- 안녕 이가 Darling Child, 2분, 비디오, Col, 1993, 미국
- 만년 홀가 Confirmed Bachelor, 4분, 비디오, Col, 1994, 미국
- 난 머뭇거리다 기운을 차려 춤추고 거짓말하였지
- I Hung Back, Held Fire, Danced & Lied, 비디오, 5분, Col, 1995, 미국
- 최소식 하지만 안전요 Information gladly given, But safety requires, 1분 10초, 비디오, Col, 미국, 1994
- 우리는 전혀 상상할수 없었다 We are Lost To Vision Altogether, 18분, 비디오, B/W, 미국

풀어헤쳐진 말들 Tongues Untied

말론 리스 Marlon Riggs, 55분, 16mm, B/W, 미국

랄프 엘리스는 미국 현대흑인문학의 기념비적인 소설 <보이지않는 인간>에서 흑인을 '보이지않는 인간 Invisible Man' 이라 했다. 하지만 만약 그 흑인이 게이라면? 충격과 논쟁, 찬사와 혹평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면 퀴어시네마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말론 리스의 대표작, <풀어헤쳐진 말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흑인 형제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이다!



퀴어시네마의 궤적들

A

H
성의 무법자들



해바라기들 Sunflowers

슨 하인스워스 Shawn Hainsworth, 50분, 비디오, Col., 1996, 미국

필리핀의 '산타크루잔(Santa Cruzan)'이라는 전통적인 축제에서는 드래퀸쇼가 매년 성대하게 열린다. 이 드래퀸쇼에 참가하는 게이들은 '해바라기'라고 불리는데, 이 쇼는 마을 주민들의 성원을 받으면서 성황리에 개최된다. 산타크루잔 축제의 드래퀸 쇼 참가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마을사람들과 인터뷰하면서, 참가자들의 어린시절의 기억들, 커밍아웃 이야기들, 가족들과의 관계, 카톨릭교회에 대한 생각들과 함께, 특정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 들여지고, 의미화될 수 있는 문화적으로 특수한 부분들이 탐색된다.

흑인이란 것은 Black is.....Black ain't

말론 리스 Marlon Riggs, 88min, 16mm, col., 1995, 미국

<풀어헤쳐진 말들>의 말론 리스의 마지막 유작. 흑인이란 무엇인가? 흑인답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또 너무 흑인답다는 건 뭔가? 흑인 시인으로서, 흑인 감독으로서, 흑인 게이로서, 흑인 지식인으로서 그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거듭 되던진다. 문화, 인종, 계급 그리고 섹슈얼리티. 이 모든 것 사이를 복잡하게 밀고 당기는 힘들을 그는 또 그만큼 다양한 언어와 이미지의 흔적들을 통해 밀고 당긴다. 죽음을 향해 두 눈 부릅뜨고 흑인게이로서 자신의 자아를 응시하는 용기와 아름다움. 혹은 자신의 손으로 새긴 묘비명.

변신의 만화경

F



제 1회 서울 퀴어 영화제 상영시간표

	①	②	③	④	⑤	⑥
19일(금)			*BLACK IS.. BLACK AIN'T	*CHOCOLATE BABIES	개막식	
20일(토)	*HOMOCOMICS	*OUTRAGE 69' *Q GENERATION	*THE WORKS OF SADIE BENNING *SHE DON'T FADE	*HIDE & SEEK *INTERPIDISSIMA *CHAHAATH	*TOTALLY F**ED UP *CHARLEN'S ENGELS	*YOUNG SOUL REBELS
21일(일)	SILVERLAKE LIFE	*DIVA TV	*THE WORKS OF TOM KALIN *THE SECOND COMING *THE ATTENDANT	*THE TOILERS & WAYFARERS *BOLO!BOLO!	*LIKE GRAINS OF SAND	*FOR A LOST SOLDIER *ACHILLES
22일(월)	*CAT SWALLOWS PARAKEET AND SPEAKS *DANGEROUS WHEN WET	*GROOVE ON A STANLEY KNIFE *KHUSH	*DIRTY LAUNDRY *PRIVATE WARS	*MY SUMMER VACATION *AMBIGUOUSLY GAY DUO	*MIDNIGHT DANCERS	*ZERO PATIENCE
23일(화)	*FRESH KILL *K	*IT'S ELEMENTARY	*ONLY THE BRAVE *NOT JUST PASSING THROUGH	*다른몸/ 다른시선	*NOT SIMPLY A WEDDING BANQUET *TONGUES UNTIED	*ISLE OFLESBOS
24일(수)	*TRANSEXUAL MENACE *JUGGLING GENDER	*THE MIDWIFE'S TALE	*INDIAN SUMMER	*MURDER AND MURDER	*GLITTERBUG *MOFFIE CALLED SIMON *ADAM	*NITRATXISSSES *KHUSH
25일(목)	*SUNFLOWERS *BLENDING MILK & WATER *LOTUS SISTERS	*MINORU, ME *SHINJUKU BOYS	*CHANGING OUR MINDS :THE STORY OF DR.EVELYN HOOKER *TRACE ELEMENTS	*INN TROUBLE	폐막식	

- * 1회 am 11:00
- 2회 pm 1:00
- 3회 pm 3:00
- 4회 pm 5:00
- 5회 pm 7:00
- 6회 pm 9:00

제 1 회 서울 퀴어영화제 특별행사

개막식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내 연극관)

서울 퀴어영화제가 지금 여기 영화의 지도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주장하고 가늠하는 축제. 서울 퀴어영화제가 마련한 영화 속의 혹은 흔적 속의 자기에 대한 성찰 그리고 퀴어영화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개막식에서 선언된다. 퀴어시네마와 퀴어공동체를 위한 우리 모두의 자축연!

우리는 레즈비언 게이 스크린이 될 것이다 : 미디어 동성애 정체성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내 연극관)

퀴어영화제가 제안하는 문화와 권력에 대한 개입과 도발의 전술들. 문화적, 정치적 보수주의가 만연했을 때 침묵하지 않고 떠돌고 노래하고 속삭이는 방법들이 주장된다. 과연 레즈비언, 게이들은 어떻게 자신의 미디어를 만들 것인가, 주류 미디어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대안적인 퀴어미디어는 어떻게 가능한가.

관객과의 대화(1) 미노로, 나 그리고 우리

저 멀리 영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미노루와 나카타가 옵니다. 관객과 함께 재일교포 게이로서의 삶에 대해, 신체장애와 동성애에 대해, 그리고 영화에 대해 말을 걸고자 우리에게로 옵니다. 분명 그와 함께하는 자리는 가장 따뜻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객과의 대화 (11)

임양한 레즈비언 누이자매들과 함께하는 주변과 그 보다 더 먼 주변으로부터의 대화. 차이를 넘어서고, 차이를 자각하며, 차이를 수궁하며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길 원하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한 페다고지.

<포럼 : 헤데로 필름? 혹은 호모적 상상력? - 다른 몸, 다른 시선>

한국의 게이, 레즈비언 필름에 대한 포럼. 지금 한국의 동성애 영화를 생각하고 모색하는 토론. 이 토론에서 우리는 영화와 동성애를 잇는 무수한 이음새들을 짚어보고 주장한다. 다른 몸, 다른 시선에 출품한 감독들과의 대화 역시 마련될 예정.

<포럼 : 아시아 퀴어웨이브를 생각한다>

<결혼 피로연>에서 <해피 투게더>까지. 몇 년간 줄달음쳐온 아시아 퀴어시네마의 흥망성쇠를 회고하고 시비거는 뜨거운 토론. 글로벌한 호모가 될 것인가 아시아적 호모가 될 것인가. 식민주의와 타자성, 성적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나아가 영화에 대한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뒤섞는 자리.

폐막식

그래도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서울 퀴어영화제는 절대 빗장을 잠기지 않는다. 이 초라한 시작을 스스로 격려하고 또 이로인한 기쁨과 꿈을 관객에게 다시 되먹임하는 축제의 마지막



페미니스트카페 고미
이대열 T.364.5950

퀴어영화제에서 관객회원을 모집합니다.

영화제 기간 이전은 물론 기간내에도 회원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일반회원(3만원)은 티켓 5매와 소식지 발송, 영화제가 마련하는 여러 가지 부대행사에 초대됩니다

특별회원(10만원)은 영화제의 전상영작을 관람하실수 있으며, 소식지 발송, 영화제 부대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을 기다립니다

티켓 4천원

(현매 가능하며 예매의 경우, 영화제 사무국(766-5626)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행사장 안내

